

결 정

2018 - 3029 신문윤리강령 위반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2월 8일자 「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

Published : Dec 8, 2017 - 11:23 Updated : Dec 8, 2017 - 13:59



(사진=유튜브)

(khnews@heraldcorp.com)』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208000488&kr=1&nt=1>>

시내버스 모는 어느 젊은 여자에 대한 온라인커뮤니티 반응이 뜨겁다.

중국 모 지방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꽃다운 20대 여성이다. 누리꾼

들은 가녀린 몸으로 대형차량 운전대를 잡는 그녀 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답다며 호평 일색이다.

국내에서도 간혹 여자 기사를 만날 수 있으나 연배는 대개 중년 안팎이다.

한 네티즌은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여자들 보면 큰 호감이 간다"며 "남자들부터 배워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 Herald. The main headline is "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 (20-year-old female driver, village bus 'front seats full'...returning to the countryside?). Below the headline is a list of other news items, including "강릉 비트코인 채굴장 '과부하'로 화재" (Gangneung Bitcoin mining farm 'overloaded' causes fire), "[Weekender] Chicken feet and more", "이나폴리 피자,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Innapoli Pizz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8 in 10 deceased Koreans were cremated...", and "Kakao Friends boosts sales via 'Winter R...". There is also a "Hot Click" section with a video thumbnail showing a car accident and the caption "아반떼에 깔린 보행자의 '골든타임'" (Golden time for pedestrian crushed by Avante).

<캡처시각 17. 12. 8. 23:52>

※참고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 for the word "만석" (man-seok). The search criteria are "만석" and the results show 1 item. The word is defined as "만석(萬石)[만 : -]" and is categorized as a noun. The search results list two items: "1) 곡식의 일만 석." and "2) 아주 많은 곡식."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유튜브 영상에서 가져온 스틸 한 컷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 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기사의 기본 원칙 가운데 지킨 게 없다.

제목은 더 심하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에도 올린 제목 「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 은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지 않는다. 기사에는 ‘시내버스 모는’인데 제목에는 ‘마을버스’이고, ‘앞자리 만석’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만석’은 표제어로 <만석(萬石)= 「1」 곡식의 일만 섬. 「2」 아주 많은 곡식>만이 등재돼 있다<참고>. 이 만석을 ‘滿席’으로 이해하더라도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귀농?’도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